

‘The1904’ 양림에서 광주의 근대화 시작되다

기독교인·문화예술인들 양림동 유적·자산 기억하기

23일까지 ‘최홍종의 날’ ‘한·이스라엘 교류전’ 등 행사

1904년은 광주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해다. 이는 광주 근대화의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그해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일행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나주를 거쳐 양림동에 들어와 12월21일 광주선교부를 열고, 나흘 뒤인 12월25일 크리스마스에 유진 벨 선교사가 첫 예배를 올렸다.

지난해는 광주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흥인화 전 광주시 의원, 나문호화네트워크 윤경미 단장, 김영태 작가, 양경모 작가, 고재순 목사 등을 중심으로 ‘The 1904’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연극 ‘서서평’과 뮤지컬 ‘서서평’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고,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했다.

‘The 1904’는 지난해 한 차례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선교사들의 심장이 깃든 양림동과 그들의 흔적들 더듬고 기억하는 행사들을 해마다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의 근대화 유적과 정신을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였다.

‘The 1904’가 올해는 평생 헌신의 삶을 살다 간 오방(五放) 최홍종 목사의 서거 49주년을 맞아 ‘The 1904, Heritage 추진위원회’(위원장 흥인화 전 광주시 의원)를 구성해 14~23일 ‘최홍종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스라엘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최홍종 목사의 외손녀 백옥경씨가 함께한다. 아프리카와 중국에서 10년 넘게 선교활동을 했던 백씨는 6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최홍종 목사는 광주 출신의 제1호 기독교인 이자, 최초 목사다. 그는 유진 벨 목사의 집에 드나들다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에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



오방 최홍종 목사

자신의 땅 1000평을 기증해 한국 최초의 한센병 병원을 설립했고, 1920년 광주 YMCA를 창설하기도 했다. 1933년 5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이끌고 광주에서 경성의 조선총독부까지 ‘구라(救難) 행진’을 벌여 일본으로부터 소독도 재활 시설 확장에 대한 확답을 받아낸 일화는 유명하다.

The 1904, Heritage 추진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전남대 의과대학, 광주기독병원, 광주YMCA, 광주중앙교회, 여수 애양원 등 최홍종 목사의 유업을 함께 두어 한다.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중앙교회 소예배실과 15일 오후 7시30분 광주제일교회 중등부실에서는 ‘최홍종의 날’ 행사가 열린다. 최영관 YMCA 오방최홍종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방 선생에 대해 소개하고, 임락경 목사가 ‘내가 본 스승 최홍종 목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파한다. 이어 최홍종 목사의 막내 딸인 최윤희 여사의 영상이 상영되고, 최홍종 목사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북춤, 대금, 판소리 등 공연도 예정돼 있다.

16일 오전 11시 신림교회에서는 오방 수련원 입당예배 및 제막식이 열리고, 오후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연극 ‘나의 남편 최홍종’이 공연된다. ‘The1904, Heritage의 밤’ 행사는 17일 오후 7시

들어 광주의 첫 번째 교인이 됐다.

그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1909년 제정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조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1911년에는



17일 ‘The 1904, Heritage의 밤’ 행사가 열리는 우월순 선교사 사택.



한국·이스라엘 교류전에 전시되는 김영태 작 ‘그림자 땅, 무등산’.

호남신학대학교 내 우월순선교사 사택 앞에서 열린다.

오는 23일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GIC갤러리에서는 이스라엘 작가, 광주를 비롯한 국내 작가들이 참여하는 ‘한국·이스라엘 교류전’이 진행된다. 기독교 역사가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의 풍경들이 전시된다.

사라 벤 요세프 등 이스라엘 작가 4명과 진스하, 김수정, 김영태, 박세희 등 광주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 공

해주, 박두식, 황혜정 등 서울·경기지역 작가들이 그린 이스라엘 풍경이 함께 전시된다.

최홍종 목사의 외손녀 백옥경씨는 “외조부님을 기억해 주는 글과 영상을 만나면서 저의 어머니와 남편, 자녀들 모두 외조부님을 새롭게 기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외조부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가슴 뛰는 감동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로랑 칸테 감독

광주국제영화제 수여

특별상에 평론가 달시 파켓

광주국제영화제가 수여하는 제5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본상 수상자로 프랑스 출신 로랑 칸테 감독이 선정됐다. 또 평론가 달시 파켓은 특별상을 받는다.

김성재 심사위원장은 13일 “올 해 영화제 테마가 ‘아시아의 빛, 평화’인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작품을 통해 인권·평화·휴머니티와 관련한 강력한 이슈를 제기해온 가장 로랑 칸테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달시 파켓은 한국의 독립영화를 지지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은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예술창작 자유 보장, 영화진흥기금 조성 등 한국영화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썼던 ‘문화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로랑 칸테(Laurent CANTET) 감독은 칸느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거



로랑 칸테

달시 파켓

장 감독으로 이번 영화제에서 특별전을 통해 ‘폭스파이어’, ‘클래스’, ‘인력자원부’ 3편이 상영된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5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 행사에서 열리며 이희호 여사가 시상한다. 박상민·김지은의 사회로 진행되는 개막식에는 조재현·김영호 등이 참여하는 레드카펫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제15회 광주국제영화제는 18일까지 5일동안 광주 롯데시네마 총창로관과 광주영상복합문화관(G시네마)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가곡 부르기 ‘둘이서 하나 되어’

15일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부부의 노래’ 함께 배워

매일 두번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 노래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욱)가 5월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이번 달 행사의 주제는 ‘둘이서 하나 되어’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생각하며 부친 주제다. 함께 배우는 노래 역시 박원자 씨의 시에 김진우씨가 곡을 부친 ‘부부의 노래’다.

행사에서는 ‘그네’, ‘보리밭’, ‘남이 오시는지’ 등 친숙한 곡들을 함께 부른다. 또 잊혀져 가는 가곡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꿈나무들 무대에서는 광주예고 3학년 조혜진 양이 ‘꽃구름 속에’를 들려주



김미옥

며 전대사대부중 합창 동아리가 출연, ‘산유화’ 등을 선사한다. 회원 연주로 나인희·김희숙·장흥식·박형래·서혜란·박진영씨가 ‘갯물’, ‘사랑하는 내

남이여’, ‘황혼의 노래’, ‘그리워’,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를 부른다. 초청 성악가로 소프라노 김미옥(광주대 겸임교수)씨가 ‘동심초’와 ‘수선화’를 들려준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특별기획 토요상설무대

판소리극 ‘방탄철가방-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

6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1980년 5월을 중국집 배달부의 ‘철가방’에 녹여낸 폭소 감동 창작 판소리극 ‘방탄철가방-배달의 신이 된 사나이’ <사신>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의 5·18특별기획으로 토요상설무대에 오른다. 16일 오후 3시 서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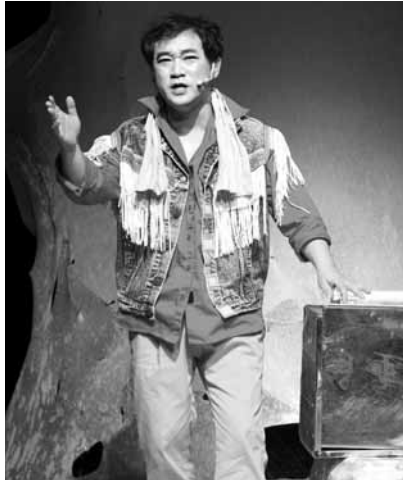
‘방탄 철가방’은 지난해 8월 서울국립극장에서 초연돼 전석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다. 전남의 한 시골에서 자란 최배달이 1980년 광주 금남로 평양반점에 취직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주인공 최배달은 조부모와 전남 시골 마을에서 곡물배달을 하며 자란 탓에

자전거 타는 솜씨가 좋다. 5월 어느 날, 평화로운 금남로가 대재앙에 휩싸이고 배달에 곤란을 느낀 그가 ‘배달로 평탄작전’에 돌입하면서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으로 빨려들어가간다.

최용석은 성우형 명장 등을 사사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김세종제춘하가 이수자다. 지난 2002년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를 창단한 뒤 ‘닭들의 꿈’, ‘스마트 폭탄가’ 등 사회성 짙은 창작판소리를 선보이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16일 프리마켓 ‘박장대소’ 개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16일 오후 1~5시 박물관 정원에서 프리마켓 ‘博場大笑(박장대소)’를 개최한다.

이번 프리마켓은 문화예술작가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체험형 공연 프로그램이 함께 열린다. 작가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

을 판매하거나 선보이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마카롱과 푸딩 등 간단한 먹을거리도 준비돼 있다. 이날 2~4시에는 아프리카 타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연, 오후 3시에는 미술공원이 펼쳐진다.

프리마켓 ‘博場大笑’은 오는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운영된다. 문의 062-570-7053, 7068. /김경민기자 kki@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원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신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다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총창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서구 벽진동 대지 230㎡ 매 5억
- 서구 마록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매가: 평당 15만원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습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연소독: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장소: 해남읍서 대홍사 가는길목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건평: 주택4동+캠핑카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면적: 4100평방미터 (계획관리)

▶매가: 1억3천만원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면적: 4509평방미터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존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하기
고창에 집짓기
을 추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영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 가로 85cmx세로 55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NAVER 검색하기

다비플라워

국화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